

# 전북교육청, 일반고 합격자 발표

전주·군산·익산 총 8999명... 12일 공개추첨· 15일 오후 2시 학교 배정 결과 발표

전북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합격자는 소속 중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인 '전북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 (<http://snp.b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합격자 발표와 관련,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 8,999명 모집정원에 9,476명이 지원해 전주 5,575명, 군산 1,674명, 익산 1,750

이 합격했다. 이는 전체 지원자 중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이하 외국자) 합격자 198명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28명을 제외한 숫자다. 이 중 전주 144명, 군산 65명, 익산 70명이 불합격했다.

이어 오는 12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언론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일반고 합격자에 대한 학교 배정 공개 추첨회를 개최, 15일 오후 2시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전주시의 경우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 정원조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정 학교는 소속 중학교나 전북고입전형포털(<http://snp.b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기·후기 합격자의 모집 등록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평준화지역 38개교를 제외한 95개 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2월 4일~5일 이틀 간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대한 안내는 도교육청·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남원캠퍼스 3월 개강

남원시는 오는 3월부터 목철공예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종사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목철공예산업 전공 20명, 화장품뷰티산업 전공 20명을 모집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22일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의 이동수업 승인하고 3월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남원캠퍼스 운영을 통해 목철공예와 화장품뷰티 산업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학사과정의 전문기 육성은 물론 제품개발 및 다양한 기술접목으로 혁신적 생산기반 구축과 창업 등이 가능해졌다.



하얀 눈 쌓인 목정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지난 8일 목정호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특히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학생들의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재학 시에는 전북대 학생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학사자격이 주어진다.

남원캠퍼스는 총 4년 과정으로, 올해는 1학기(3.2~6.21)와, 2학기(9.1~12.20)를 월~금요일까지 야간수업(19시~22시)으로 운영되고, 1학년 수업은 남원시 평생학습관 분관(광안북로 54) 3층에서 실시되며, 2022년도부터는 신축 캠퍼스(조산동 459번지)에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접수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합격 후 등록금 납부일까지 남원시에 주소를 이전할 사람으로, 남원시청 또는 시청 산하기관, 남원시 관내 상시 종사자 1인 이상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자는 지원이 가능하고, 원서접수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남원시 교육체육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1월 29일 면접 시험을 거쳐 2월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문은 시 홈페이지나 교육체육과(063-620-5601), 또는 전북대 홈페이지 및 상과대학 책임교수 최석규(010-6836-82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2차 교원임용고시, 확진자 응시 허용할 듯

오는 13일 시작되는 2차 교원임용 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재는 지난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현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검

토해 달라"고 주문하자 후속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담당자들은 지난 6일부터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14일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2차 임용고시로 면접·수업실연 평가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20일, 26~27일에 실기·실현 평가,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교직적 성심충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해 1차 교원 임용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바 있다.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고 자

가격리자는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결과 인해 2차 임용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시험방식은 미지수다. 1차 시험은 필기였지만 2차는 면접·수업실연, 실기·실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추가 논의해 확정된 뒤 각 교육청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험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67명이 지난해 1차 중등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 보이스피싱 '대출 미끼' 사례 많다

40·50대가 최대 피해자·최근 SNS 피싱 사기 증가세

전북경찰이 지난해 수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미끼로 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러한 대출사기 범죄에 주로 40~5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6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70건)보다 36% 줄었으며, 피해액도 123억 5000만원으로 전년 155억원보다 20.6% 감소했다.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중국 등 해외 범죄 조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50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기관 사칭 사기가 11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77명(28.5%), 20대 91명(14.7%), 60대 이상 85명(13.7%), 30대 78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인들이 현금화하기 쉬운 문화상품권 구매 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소액결제 문자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해 전달·인출액 등 보이스피싱 사범 1039명을 검거하고 이중 100명을 구속했다.

실제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검찰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속여 34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한 수거책을 구속한 바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단속을 강화하고,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언택트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새해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우석대 최혜원·유소현씨, 교육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는 최혜원(혁신지원팀) 팀장과 유소현(교직부) 직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최혜원 팀장



유소현 직원

최 팀장은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교수-학습지원체제 등의 교육 혁신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 연도 평가에서 A등급 획득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유 직원은 교직과정 전산

수상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북교육문화회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운영되는 독서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우리가 만드는 세계'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글로벌 이슈와 인권, 환경, 공

정무영 등 다양한 미래 과제를 세계시민 관점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공영희 작가의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특강도 펼친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